

SK broadband 2분 24초만에 UHD영화 다운

“10기가 인터넷 시대 포문 연다”

국내 최초 2.5기가 인터넷 상용화 ‘기가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
기존 1기가 인터넷 보다 3배 빨라



유지창 SK브로드밴드 인프라 부문장이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가 프리미엄’을 소개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가 10기가 인터넷 상용화에 앞서 2.5기가(2.5Gbps) 인터넷 시대를 연다. 이동통신 업계 최초로 2.5기가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에 이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10일 서울 중구 퇴계로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가장 빠른 속도인 2.5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용화한 ‘기가 프리미엄’은 가구당 2.5기가, 단말별 1기가 인터넷 속도를 제공한다. 단말 당 평균 속도는 833메가비트(833Mbps)로, 기존 1기가 인터넷(333Mbps)보다 약 3배 빠르다.

미국의 IT 솔루션 전문업체인 시스코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2021년이 되면 일인당 인터넷에 연결하는 단말 대수가 12.2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기가 프리미엄은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인터넷 단말 이용 고객 ▲대용량 콘텐츠 다운로드 고객 ▲게임을 즐기는 고객 ▲가상·증강현실(VR·AR) 콘텐츠 경험 고객 ▲홈 IoT 디바이스 이용 고객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는 고객을 타겟으로 한다.

SK브로드밴드는 가정 내 3개의 단말이 연결된 상태에서 1시간 30분 분량의 초고화질(UHD) 영화 콘텐츠 다운로드 시 기존 1기가 인터넷의 경우 6분이 소요되지만, 기가프리미엄 이용 고객은 2.5배 빠른 2분24초 만에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랜카드 교체 등 별도의 장비 설치 없이 기존에 사용 중인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유지창 SK브로드밴드 인프라부문장

은 “스마트폰, 태블릿 등 일인당 보유 단말 대수가 증가하고 동영상 시청 등으로 데이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활용도가 높아진 와이파이 서비스를 함께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최저 보장속도(SLA)도 최고속도 대비 30%에서 50%로 높였다.

기가 프리미엄 서비스 출시에는 통신국사와 가입자 간 광케이블망을 연결하는 G-PON(기가비트-수동광통신망) 기술이 큰 역할을 했다. G-PON은 광케이블 1개(코어)로 최대 52.5Gbps 속도까지 제공하며, 가입자를 128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촉진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5기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경쟁사인 KT도 올해 9월 10기가 인터넷을 상용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안원규 마케팅지원본부장은 “현재 10기가 시장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지켜보고 있다”며 “10기가 인터넷 상용화 이전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서비스할 수 있는 2.5기가 서비스 출시를 통해 기가 인터넷 시장의 경쟁구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미 하나의 광고어로 최대 52.5Gbps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인터넷 전송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으며, 2020년까지 100Gbps 이상 데이터까지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통신망 구축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40% 수준인 2.5기가 인터넷 커버리지를 70~80%까지 넓힐 계획이다. 장비와 단말 투자까지 포함한 투자액은 2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내년 상반기 무선시장에서 5세대(5G)이동통신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VR·AR,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AI 로봇 등 다양한 서비스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유선시장에서도 10기가 인터넷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 및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지창 부문장은 “이번 2.5기가 인터넷 출시를 기점으로 다가올 10기가 서비스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가 프리미엄은 SK브로드밴드 유선 전화·인터넷TV(IPTV)와 결합하거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와 결합할 경우 최대 30% 저렴한 월 3만1790원(3년 약정 조건)에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삼성SDS 美 GPU 가상화기업 투자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제고



삼성SDS가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미국의 GPU(그래픽 처리장치) 가상화 기술 업체인 비트퓨전에 투자했다고 10일 밝혔다.

비트퓨전은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연산에 필요한 GPU 자원을 가상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GPU는 직렬처리방식인CPU(중앙처리장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실시간 분석 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최근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삼성SDS는 비트퓨전 기술을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적용해 GPU 성능을 2~4배 높이고, 비용은 최대 50% 절감시켜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삼성SDS는 아마존, MS, 오라클 등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버투스팀, 스팟인스트 등 클라우드 선도기업들과 협력해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G7 씽큐’ 예판 경쟁 스타트...할인·사은품 3색

SKT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 미니’ 증정 KT 중고폰 보상 ‘최대 103만원’ 할인 LGU+ 블루스피커에 BTS앨범 등 ‘풍성’

이동통신 3사가 11일부터 LG전자 플래그십 모델인 ‘G7 ThinQ(씽큐)’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마련하는 등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1일부터 LG G7 씽큐 예약판매를 17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식 출시일은 18일이다.

G7 씽큐(64GB)의 출고가는 89만 8700원, G7+씽큐(128GB)는 97만 6800원이다.

G7 씽큐는 ‘슈퍼 브라이트 디스플레이’를 도입해 야외에서도 밝고 선명한 화질을 제공한다. 또 촬영 대상과 주변 환경에 따라 카메라의 설정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탑재했다. 오디오의 ‘붐박스 스피커’ 기능은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 시 테이블 위에 올려두면 대형 스피커처럼 웅장한 사운드가 나온다.

G7 씽큐는 6.1인치 디스플레이에 메모리는 4GB, 64GB, 색상은 뉴모로칸 블루, 뉴오로라 블랙, 라즈베리리즈 총 3가지다. G7+씽큐는 동일한 디스플레이에 메모리는 6GB, 128GB로 뉴모로칸 블루 색상 1종이다.

이동통신 3사의 제휴카드와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최대 70만원대, KT에서는 최대 103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은품 종류도 다양하다. SK텔레콤에서 G7 씽큐를 예약하는 고객은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미니’와 프리디 무선 충전기, 우드 붐박스 중 한가지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개통 기준으로 선착순 3000명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뮤직메이트’ 2개월 무제한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몰 ‘T월드 다이렉트’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추가 사은품으로 ▲브리즈 블루투스 스피커·시계 ▲샤오미 3세대 고속충전 보조배터리 ▲프리디 무선충전기 ▲누구 미니 3만원 할인권 등 4종 가운데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SK텔레콤 홍보모델이 ‘G7 씽큐’를 소개하고 있다. /SK텔레콤



KT 스키퍼를 찾은 고객들이 G7 씽큐 예약 판매 상담을 받고 있다. /KT

KT로 예약하는 고객은 ‘프리디 무선충전패드’와 ‘우드 붐박스’ 중 1가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T삼의 직영 온라인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앤스리 사운드티비 블루투스 스피커’, ‘요이치 셀카봉’, ‘탁상용 다용도 거치대’, ‘3인1캐이블’ 4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G7을 구매한 사전예약 고객에게 ▲뮤직팩(블루투스 무선 마이크+지니뮤직 3개월권) ▲무비팩(AR 매직미러 안경+U+비디오포털 VOD 쿠폰 3만원권) ▲붐박스팩(붐박스 스피커+지니뮤직 3개월권) 중 한가지를 선택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8일부터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쿠폰 2만원권을 제공한다. 공식 온라인몰 ‘U+Shop’에서 사전예약을 하는 고객은 추가로 ▲BTS 정규3집 앨범 ▲스위스 밀리터리 모바일 액세서리 10종세트 ▲블루투스 스피커 등 7개의 사은품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K㈜ C&C

‘공유 오피스’ 도입 협업·소통혁신 시동

SK㈜ C&C가 구성원들의 고정 좌석을 없애고 개방과 공유를 키워드로 한 업무 공간 혁신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SK㈜ C&C 분당 사옥의 4개 층을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전환해 구성원 간 자발적 협업의 공간으로 변화시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SK㈜ C&C는 먼저 기업문화부문, 전략기획부문, 대외협력부문 등 전사 지원 조직과 회사 임원들이 근무하는 25층, 26층, 27층을 공유 오피스로 전환하고 7층을 디지털 협업 공간으로 변화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조작성 고정 좌석이 없어진 것이다. 구성원들은 본인의 업무 필요에 맞춰 7층과 25~27층에 배치된 집중존, 소통존, 협업존의 좌석을 사용할 수 있다.

공유 오피스는 업무에 따른 구성원 간 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구성원들이 본인 업무 중 타 부서 구성원들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협업존에서 함께 공동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 협업존은 별집 모양으로 좌석을 배치해 앉은 자리에서 자유롭게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서윤 기자



LG전자가 10일부터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회 ‘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게이밍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LG전자

‘플레이엑스포’서 게이밍 IT기기 대거 공개

LG전자 게이밍모니터 6종 등

LG전자가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게임 전시회 ‘2018플레이엑스포’에 참가해 게이밍 모니터 6종, HDR 모니터 6종, LG 게이밍노트북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대표 모니터 제품인 34인치 ‘LG 울트라와이드 나노IPS 모니터(모델명: 34GK950G)’는 21:9화면비로 WQHD(3440×1440)해상도를 갖췄다.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G-싱크 기술을 적용했다. G-싱크는 모니터에 나타나는

복잡하고 전환이 빠른 화면도 끊기거나 잘리는 현상을 최소화한다. 또 LG전자는 이 제품에 ‘나노 IPS’ 패널을 적용했다.

또 이 제품은 21:9 화면비로, 기존 16:9 화면비 모니터에서는 보이지 않던 좌우 양쪽 끝 화면까지 보여줘 몰입감을 높인다. 21:9 화면비를 지원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필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게임을 보다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다. 15.6인치(39.6cm) ‘LG 게이밍 노트북(모델명: 15G870)’은 인텔 프로세서 i7-7700HQ를 적용해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다. /정은미 기자 21cindun@